

100억 투입하고도 개관 못한 '보성 주암호 생태관'

생태관 현판 위엔 벌집... 야외정원에 잡풀 무성 '눈살' 준공 1년6개월 지나도 문 못 열어... 관리소홀로 노후화 보성군 "건물 보강·업체 선정해 내년 7월 개관 하겠다"

보성군이 10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보성 주암호 생태관'이 준공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하면서 '헬스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이 생태관 건립을 추진한 지 8년여 만에 완공했지만, 적정 운영업체 선정 등의 문제로 개관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건물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도비 9300만원, 군비 49억70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99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5월 '보성 주암호 생태관' 건립을 완료했다. 당초 군은 이 생태관을 전국 최대 인공습지인 주암호 수질보전 교육 및 홍보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생태관 내 주요시설로 생태관-생태습지 연결로, 주암호 생태관, 육상 야외

정원 등을 갖췄다. 생태관에는 습지 만들기 및 물고기잡기 체험, 도형 블록을 이용한 동식물 영상 만들기, 습지 이야기 등 전시와 생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로인해 군은 주암호 생태관의 다양한 체험 행사가 유아·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생태 교육을 위해 견학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보성 주암호 생태관' 준공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건물 기능 보강 및 위탁 업체 선정 등의 문제로 개관이 미뤄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물이 오래도록 비어 있는 데다 관리 소홀로 인한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지난 20일 찾은 보성 주암호 생



물이끼 낀 '보성 주암호 생태관' 연결 바닥로.

태관. 현판 위에는 벌집이 커다란 집을 지어 자칫 벌들에 쏘이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진·출입 주변 보도블럭 사이와 조형 시설, 야외정원에는 미관을 해치는 잡풀들이 무성했다.

또 생태관의 공사개요를 알리는 입간판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 8월 완료예정"이라는 문구가 게재돼 있었다.

생태관 전면에 위치한 생태습지 입구 편의시설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관리 사무실은 언제쯤 문을 열었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돼 있었고 공중 화장도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생태관 일부 시설은 아직 개관조차 안했는데도, 벌써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태관과 생태습지를 통하는 지하

연결로에는 하자보수를 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지만, 곳곳에 습기와 함께 물방울이 맺혔고 악취가 진동했다. 바닥또한 물 이끼가 가득해 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었다.

지역민 A씨는 "사람 왕래도 없는 곳에 수년에 걸쳐 생태관을 지어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니 건물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다"며 "보성군은 주민들의 열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관과 관리에 최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성군은 생태관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 기능을 보강해 빠른 시일 내 개관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생태관의 기능 보강과 위탁운영 업체 선정의 문제로 개관이 늦어졌다"며 "그동안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사실상 제대로 건물을 관리하지 못했다. 생태관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고 앞으로 진출입로 개선, 연결로 기능 보강,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의 작업을 추진해 빠르면 내년 7월에는 완벽한 손님맞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성=문주현 기자

브리핑

곡성 도립사 괘불탱 경남 통도사에 전시



보물 제1341호 곡성도립사괘불탱이 경남 양산 통도사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9월 28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통도사 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37-곡성 도립사 괘불탱'이 개최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는 매년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37번째 특별전은 곡성군 도립사 괘불탱이 주인공이다. 전시는 통도사가 주최하고 전남도, 곡성군, 도립사가 후원한다.

도립사 괘불탱(谷城 道林寺 掛佛幀, 1683년, 780.2×702.2cm)은 희귀한 석가삼존도 형식으로 색채구성과 독특한 문양표현, 인물의 형태 등에서 17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괘불로 알려져 있다. 2002년에 보물 제 1341호로 지정됐다.

괘불탱의 훼손 우려 때문에 꺼내어 걸어두는 것이 쉽지 않아 곡성군에서도 갈수록 더 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이번 특별전을 통해 지역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곡성=박철규 기자

장흥, 산림문화박람회 '성황'... 34만명 다녀가

장흥군 탐진강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총 34만32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산림정책을 홍보하기 열린 이번 박람회는 행사 기간 내내 지역민과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박람회장은 '르'자 형태의 동선을 구축하면서 관람객 편의제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탐진강변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홍보 부스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관람객들의 시선이 구석구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암벽등반, 썰라인, 목공체험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거리도 인기를 끌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곳곳에

배치되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방문도 늘었다.

목재와 관련된 생활용품과 각종 임산물 판매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장흥한우삼합과 장흥 표고버섯은 박람회 기간 동안 큰 인기몰이에 나섰다.

장흥한우삼합 홍보관에서는 장흥한우, 표고버섯, 키조개를 이용한 '장흥한우삼합'을 전시하고 장흥한우를 이용한 레시피영상을 선보였다. 한우삼합을 시식하는 시간에는 긴 줄이 늘어섬과 관람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장흥표고버섯 홍보관에서는 원목재배 표고버섯을 이용한 향토음식, 가공제품, 재배 기자재 등을 전시하고, 표고버섯 토피어리 포토존을 설치하여 특색 있게 운영했다. 표고차, 표고전, 표고잡채, 표고떡, 표고식혜 등 표고음식 시식 코너를 운영해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장흥=이영규 기자

엘로우시티 장성 '황금사과' 첫 수확부터 관심 집중

장성군, '황금사과 육성사업 현장평가회' 성료 아삭한 식감·새콤달콤...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

장성군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장성 황금사과 육성사업 프로젝트'가 3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장성군은 지난 18일 삼서면 금산리 소재 엘로우농원에서 '황금사과 육성사업 현장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첫 수확한 황금사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 자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자와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황금사과는 새콤달콤한 맛을 지녔으며, 과즙이 많고 식감이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한다. 과중은 350-400g 가량으로 껍은 채 오래 두어도 갈변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6개월까지 저온 저장 가능할 정도로 저장성도 뛰어나다.

밀식재배가 필요해 모목구입 비용이 후기 품종에 비해 3배 가량 비싸지만, 착색을 위한 반사필름 설치나 열매 돌리기, 잎 따기 작업 등이 필요 없어 생산 비용을 10% 절감할 수 있다. 또 수확 시기가 10월 상·중순으로, 홍로와 후지 사이에 출하돼 틈새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장성 황금사과 육성사업 프로젝트는 2017년 컬러푸드(color fruit) 사업의 일환으로 황금사과 모목 2500주를 지원하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황금사과 과원을 시범 조성하고, 황금사과 확대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9년부터 황금사과 확대조성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10월 첫 수확을 맞이했다.

이날 평가회는 육성결과 보고와 재배



장성군은 지난 18일 삼서면 금산리 소재 엘로우농원에서 '황금사과 육성사업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장성군 제공

농가 사례 발표, 전시품 관람 및 시식 순서로 진행됐다. 평가회에 참여한 바이어는 "당도와 과즙의 조화가 환상적"이라며 "사과는 붉은 색이라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는 등 좋은 마케팅 포인트도 지니고 있다"고 평했다.

현재 장성군에 조성된 황금사과의 재배면적은 6.8ha로 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군은 추후 묘목갱신 위주로 지원해 2023년까지 40ha 규모로 재배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장성=유봉현 기자

스타렉스 캠핑카 "나는 자연인이다"

- 영업 업무용, 5인 자가용, 자유캠핑카, 태양열, 220v, 자가 충전 및 무 시동 히터, 자동차 검사 시 실내 내용물 탈부착 필요 없음
- 중고차 판매 시 제 가격 받을 수 있음

▶무시동 히터로 사계절 내내 안전하게, 활용도 높은 구조 / 넉넉한 수납공간, 럭셔리한 원목 가구 ▶간이냉장고, 싱크대를 탈부착 할 수 있는 편리함 / 편안한 잠자리 공간

3M하이웨이
광주 북구 제봉로 323-1(중흥동 703-1) / 062-514-5551